

우리 모임에선

불자가수회 하계수련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7월31일 경기도 마석 물고단유원지 수련원에서 입원진 및 정규 회원을 비롯 후원회원, 특별회원들과 함께 친목을 겸한 하계 수련회를 가졌다. (02)713-2905

무량회 염주·단주 증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매달 생일을 맞은 회원과 회원 가족들에게 103 염주와 단주 증정운동을 벌인다. 또한 무량회는 오는 9월 8주년 기념법회 때 창립 이래 초창법사들의 법문을 풀어 쓴 <법문집 1>을 보시하기 위해 녹음테이프 풀이작업에 들어갔다. (02)401-7584

하북동 생명농업 체험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장 정지문)는 13~15일 실상사에서 '생명농업 체험 하계 수련회'를 연다. 하이텔불교동호회는 불법의 진리를 묻고 답하는 것 이외에 실상사 농장에서 노작활동을 직접 해 보면서 흙의 생명력과 우리의 먹거리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농촌현장을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심우회 21사단 장병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25일 양구 21사단 신교대에서 불자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2백50여 명의 장병들에게 합장주와 떡, 음료수 등을 보시했다. 또 같은 날 2사단 신교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하고 보시품을 전달했다. (02)529-3861

“약사보살이 되자” 서원

한일병원 불자회 창립 의료진등 30여명 회원

전국 11곳의 지역 불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불자회에 또 하나의 불자회가 결성됐다. 한국전력 부속 한일병원 불자 의뢰진 및 행정 사무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일병원 반야회가 창립된 것.

한일병원 반야회(회장 이영숙·김진관리대리)는 7월23일 병원 강당에서 병원 불자회원과 환자를 비롯 분사 반야회, 경희의료원·국립경향병원·중앙병원 불자회, 가수불자회, 세무사불자회, 감사원불자회 대표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회장인사, 박병무 한일병원장과 정원용 분사반야회 명예회장(재무관리 처장)의 축사, 용수사 정락스님의 법어, 정근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반야회원들은 약사보살의 원력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신행을 다져 전법에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이영숙 회장은 “불자회 출범의 기쁨 못지 않게 62년의 역사를 가진 한일병원에 이제서야 불자회를 창립



한국전력의 12번째 불자회인 한일병원불자회가 7월23일 각계 직장직능 불교회의 축하 속에 창립법회를 가졌다.

하게 돼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초발심의 자세로 법도에 어긋남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락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는 부처님의 안목으로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종교이다”고 설명하고 “각자의 마음에서 행복을 찾고, 자리아타의 삶을 사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불교의례를 통해 불교의 생활화를 당부했

다. 한일은행반야회는 매일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 강당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정기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불자회는 오는 10월 직지사에서 5백여 명의 한전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2개 불자회 연합법회를 봉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2)901-3069 김민숙(성명회과)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원주 ‘운불’ 창립 1돌 기념법회

원주 호출택시 운전불자들의 모임 원주운전기사불자연동회(회장 최준영)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원주운전기사불자연동회는 7월25일 원주불교회관에서 30여명의 회원과 가족을 비롯 원주불교회관 관장 일휴스님, 리선행 법사, 성불합장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최준영 회장은 “육바라미의 보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법사의 자세로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부처님 말씀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법어를 한 리선행지도법사는 “경전에 의지해 공부하고 행으로써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거리의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호출택시 창립 제1주년 기념 대법회



원주운전불자들은 창립 이후 법회활동 외에도 원주일대 사찰에서 법당수리, 길 닦기, 집초받기 등의 자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불우노인 일일관광도 실시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성동구처소 재소자 35명 오게 받고 ‘제2인생’ 출발

재소자 35명이 불제자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성동구처소는 7월23일 법당에서 동작구불교연합회 회장 예철스님과 종교위원 박희서 전수의 주관으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체 80여 명의 불제자수자들 중 35명의 재소자가 5개 수계했다. 해철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율은 등불과 같으니 계를 근본으로 삼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며 “모범수가 돼 자유의 몸으로서 사회의 훌륭한 봉사자가 되고 제2전국의 유능한 역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맑고 향기’ 재향원 방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홍교스님)은 7월21일 천마재향원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매일 셋째주 수요일 천마재향원을 방문하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오전에는 이불 빨래하기, 방 소독하기, 복도 청소 등을 돕는다. 오후에는 원생들의 야외활동을 돕는다. 특히 야외학습 보호자 활동은 원생들의 사회적응, 사회성 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당 대중사 일대기 ‘불법은...’ 출판회

진각종조 회당 대중사 일대기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 출판기념법회가 7월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진각종 각계 총인, 성초 통리원장,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 손재석 위덕대 총장,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이인제 새정치국민회의 당고문, 신계륜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륜스님 BBS 백일법문 회향

불교방송과 정도회는 7월23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법륜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을 비롯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법륜스님은 “지금 우리 앞에 불어닥친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등 현대문명의 위기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불자들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28사단 군법당 두리정사 개원

연천 28사단 268 포병대대 1포대 두리정사(군법사 유명선) 법당 개원 및 부처님 점안식이 7월 25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법철 포병대대장을 비롯 장병 50여 명과 효진정사 주지 도명스님, 군법교진흥회 부회장 해명법사, 진여원 이경숙 원장, 금강메이리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도명스님은 법어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로 군복무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우진 명예기자>



조계사 불우시설에 ‘자비의 쌀’ 전달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7월27일 대웅전 앞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화엄동산(여성실직자 무료급식소), 파랑새나눔터(결식아동 지원), 종로구청, 자양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된 쌀은 7월17일 조계사 신도들이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한 ‘자비의 쌀독’에 모은 것이다. 조계사는 앞으로 도 계속해 ‘자비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친다.

탐방

한빛은행 불자회



IMF의 위기로 해산될 뻔 했던 한빛은행과 상업은행의 불자모임이 한빛은행불자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창립법회 장면.

IMF타고 다시 밝힌 ‘자비의 등’

前한일·상업은행 불자 재회 소년가장·양로원등 후원

IMF의 어둠과 긴 터널을 불심으로 뚫어 이겨내고 재탄생된 불자모임이 있다. 옛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사 한빛은행불자회(회장 소병식 분당지점장)가 그것이다.

한빛은행불자회는 지난 3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을 증명법사로 한빛은행 불자회와 전국금융단체자연연합회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을 올렸다. 불자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일 둘째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한빛은행 영업 2부

건물 5층에서 정기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노원구청에서 추천받은 소년소녀가장 김두환(중 1)과 김혜원(초 6) 남매에게 매일 후원금 6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비양로원과 소책자마을에 매일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자비 실천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금융단체 불자회로서는 드물게 소식지 <한빛법보>를 제작, 배포해 불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포교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불자회가 단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주요했다. 집행부는 법회일정에서부터 실행프로그램 개발, 재정관리 및 확보, 회원관리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겨 회원들에게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다.

현종관 총무부장은 “회원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는 불자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배가운동으로 법회 참석자를 높일 방침인 한빛은행불자회는 올 해 안으로 ‘포켓용 독송집’을 발행,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소병식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불심 하나로 뚫어 창립된 불자회인 만큼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불법을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며 “직장의 발전과 함께 내외에 모범이 되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성명서

제12대 중앙총회의원들의 중책 모임인 일여회와 청림회, 그리고 작금의 중앙총회 운영에 우려를 갖고 있는 다수총회의원들은 제141회 임시중앙총회의 회기에 불참을 결의 한 바, 중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중앙총회를 우롱하는 탄우스님은 즉각 중앙총회의원직을 사퇴하라.
- 총무원은 종단의 주요 공직을 겸직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주요 종무원에 임용하는 일을 즉각 시정하라.
- 동국학원 이사 후보로 선정된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후보를 사퇴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동국대학교를 중흥시킬 학덕과 원력을 갖춘 중진스님들을 후보로 택하되 문중, 본사, 출연연고등을 고려하여 여법하게 이사후보를 선정하라.
- 우리는 이상의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대중여론을 바탕으로 중앙총회에서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3(1999)년 7월

일여회, 청림회 중앙총회의원 및 위 뜻에 찬동하는 다수의 중앙총회의원 일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되면서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몬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동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매달되는 증상(○) 미심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붉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